

미국 축구 '남녀 동일 임금' 따라 성평등 요구 확산



▲ 미국 여자 축구 리그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sunderatheart.com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5월 남자 선수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된 이후 축구에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일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여자 대표팀은 미국 여자 대표팀의 사례를 따라 실질적으로 남녀 동일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어떤 협약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6월 자국 협회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6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 5월 남자 대표팀 선수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미국 축구 협회와 맺었다.

과거 미국 축구협회는 여자 월드컵의 상금 규모가 남자 월드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협약에서는 남녀 대표팀의 상금을 합산한 뒤 절반씩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7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그동안 동일 임금 원칙은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남녀 축구 대표 선수들간의 대우가 큰 차이를 보여온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례다.

국제축구연맹(FIFA) 등은 여자 경기보다 남자 경기에 몇배 수준의 경기 우승 수당을 부여해온 만큼 여자 선수들은 동일한 비율의 우승 보너스를 받더라도 분모가 적은 만큼 실제 대우는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자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각국 협회별 접근보다 FIFA나 유럽축구연맹(UEFA) 등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운동 시설, 장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대우와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BA 정규리그 심판 데뷔 앞둔 한국인

2년 전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프로농구(NBA) 심판 양성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 태평양을 건넌 한국인 심판이 NBA 정규리그 심판 데뷔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날 이달 18일 개막하는 2022~2023 시즌 NBA 정규리그를 앞두고 6일부터 시작된 시범경기에서 휘슬을 불고 있는 황인태 심판(43)을 조명하며 "NBA 심판의 꿈을 안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온 그의 꿈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를 앞두고 시작된 시범경기에서 심판을 맡은 황인태 심판. 사진=scmp.com

지난 2018~2019시즌까지 한국프로농구(KBL) 심판을 맡았던 그는 NBA 심판 양성 프로그램 초청을 받고 2020년 1월 아내, 아들, 딸과 함께 뉴저지로 향했다. 이 프로그램은 NBA, G리그(NBA 하부리그),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심판이 되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AP는 "지난 시즌에 G리그 심판 경력을 쌓은 황 심판이 올해 프리시즌 심판 경력을 더해 곧 개막하는 NBA 정규리그에서도 심판 업무를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NBA가 황 심판을 심판 양성 프래그램에 초청한 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계기가 됐다. 황 심판은 리우 올림픽 당시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휘슬을 불었는데 NBA 측이 이를 눈여겨 본 것이다. 심판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있는 NBA는 국제대회에서 눈에

띄는 판정을 보여준 레프리들을 NBA 비시즌인 서머리그에 초청하고 이었다. 황 심판은 2017년 NBA 서머리그에 초청을 받았다. KBL이 국제농구연맹(FIBA) 경기 규칙을 도입한 2014~2015시즌 이후 국제 대회에 가장 많이 파견된 심판이 황 심판이다.

몬티 맥커천 NBA 심판 담당 부회장은 "심판 양성 프로그램은 언어,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장된 건 아무 것도 없다."며 "황 심판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미국에 건너왔다."고 말했다. 황 심판의 도전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다.

황 심판은 2004년 대한민국농구협회 심판으로 등록했다. 2008~2009시즌부터 2018~2019시즌까지 11시즌 동안 KBL 심판으로 활동하며 통산 466경기에서 휘슬을 불었다.

수술없이 연골 재생

www.stemsclinic.com

미국 내 합법적인 자가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 시술

PRP 인대 강화 치료

PRP 오십견 인대 강화

PRP 허리 통증 치료

PRP 만성 손목/발목 치료



축구광 가수 김홍국,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 시술 후 다시 축구 시작



한국인 의사 세계 최초로 지방줄기세포 관절염 연골재생 치료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R86dgjRjKRM

박재우 MD (Jaewoo Pak, M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C School of Medicine
UCLA-affiliated hospital 내과 전문의 과정
노인 내과 전문의
재생의학 전문의
한국 화이자 제약회사 의학부 부장
한국 의료법 학회 이사
한국 의사 면허
중국 베이징 의사 면허



US patent Cert, syringe stopper



2011 영국 의학저널 최우수 사례보고 수상

박재우박사 발표 논문 (지방줄기세포 + PRP 연골재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연골재생 치료
술개골 연골연화증 연골재생 치료
반월상연골판 연골파열 연골재생 치료 11
고관절염 연골재생 치료
SVF 자가 지방줄기세포 안전성
PRP 인대강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뼈재생치료
연골재생 치료
SVF 줄기세포 치료
반월상연골판 연골파열 연골재생 치료 21
SVF 줄기세포 연골재생 치료 방법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 치료

스템스 줄기세포 통증내과 T. 714.389.7000 4840 Irvine Blvd. #203, Irvine, CA 92620 (시온마켓몰)